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영학 석사학위논문

부모에 대한 자녀의 선물 증여 의사결정 연구

- 못된 자녀 이론의 응용 -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전공

김 동 주

부모에 대한 자녀의 선물 증여 의사결정 연구

- 못된 자녀 이론의 응용 -

지도교수 주 우 진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 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마케팅

김 동 주

김동주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 년 12월

위 원 장 김 재 일 (인)

부 위 원 장 박 기 완 (인)

위 원 주 우 진 (인)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못된 자녀 이론과 선물 증여 행위에 관한 연구들을 응용해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선물 증여 행위의 의사결정 행태를 분석했다. 두 자녀와 부모로 구성된 효용 함수 모델을 사용해 자녀의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부모의 선물에 대한 반응, 부유한 정도 등의 요인들이 선물 증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실증연구에서는 형제자매가 있는 20대~30대를 대상으로 (1) 본인과 형제자매가 복권 당첨금에서 부모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 생각하는 금액, (2) 부모가 복권 당첨 상황에서 자녀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 생각하는 금액, (3) 실제 선물 지출 금액과 월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4) 수입이 다른 상황에서 다른 자녀와의 부모님 선물 지출 금액 분담 정도, (5) 부모님의 비싼 선물에 대한 반응도가 차후 선물 지출 결정에 미치는 영향, (6) 다른 형제자매의 부모님 선물에 신경 쓰는 정도와 선물 선택 시 부담감 등을 질문하여 그 응답을 분석했다.

그 결과 부모에 대한 마음이 같을 때 더 부유한 자녀가 더 많은 선물 지출을 하며, 부모의 기쁨에 더 큰 가치를 느낄수록 부모님께 더 많은 선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물에 대해 부모가 느끼는 기쁨의 강도(혹은 기쁨의 표현)와 자녀의 선물 지출 금액이 반비례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모님이 작은 선물에도 기뻐하면 더 큰 선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자녀의 효심이 부모님 선물 금액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내리사랑이 선물 증여 과정에서 조절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른 자녀의 부모님 선물을 더 신경 쓸수록 더 큰 부담감을 느끼고, 부담감이 클수록 자녀의 효심의 선물 지출 증대 효과가 강화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결국 과거 못된 자녀 이론이 이기적인 심성을 가진 자녀의 자신을 위한 행동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족 전체의 이익 극대화로 이어진다는 의미였다면, 본 연구는 부모님의 기쁨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효심을 가진 자녀의 부모님을 위한 행동도 효심의 동기 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과의 사회적 관계 문제 등 이기적 동기가 포함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선물 증여에 있어서 부모의 이타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선물의 기능적 측면과 사회적인 의미 도출에 치우쳐져 있어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한계점을 보완했다는 이론적 의의를 가진다. 부모님 선물 증여 상황에서 개인적 부분과 사회적 부분을 포함한 효용함수를 통해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밝혀 기존 연구를 발전시켰다. 나아가 선물이 소비 활동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가족 내 선물 증여 활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마케팅과 광고에서 자녀들의 선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로 본 연구에 등장한 결정 요소들을 참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못된 자녀 이론, 선물 증여, 가족 내 선물 증여 의사결정,
효용 함수 모델**

학 번 : 2015-20582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장 문헌 연구 및 가설 설정	3
제 1 절 못된 자녀 이론(Rotten Kid Theorem)과 비판	3
제 2 절 가족 내 선물 증여(gift-giving) 행위	5
제 3 절 개념적 틀 및 가설 설정	8
제 3 장 실증연구 : 가족 내 선물 증여 행위 연구	16
제 1 절 Pre-test 실험 방법 및 자료 수집	16
제 2 절 Pre-Test 결과 및 논의	19
제 3 절: 본 실험 방법 및 자료 수집	23
제 4 절: 실험 결과 및 논의	25
제 4 장 결론	31
제 1 절 논의 및 결론	31
참고문헌	35

부 록	39
Abstract	51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부모의 내리사랑은 있어도 자식의 치사랑은 없다” 라는 속담이 있다.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지만 자식의 부모 사랑은 그 수준에 미치지 힘들다는 의미를 가진 속담이다. 이 같은 부모의 자녀 사랑, 혹은 자녀에 대한 이타성(Altruism)은 인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써 여러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사회학과 경제학에서도 관심 있게 다루어졌다. 특히 Becker(1974)는 이기적인 자녀와 이타적인 부모의 경제적 상호작용에 대해 “못된 자녀 이론(Rotten-Kid Theorem)” 을 제시하며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가 재산을 물려줄 것이라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못된 자녀(Rotten-Kid)가 오히려 가족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 시키는 선택을 할 것이라는 이론을 전개했다. 이 이론은 가족 구성원의 의사결정 과정을 경제적 논리로 잘 설명해 차후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위 Becker의 연구는 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의사결정 행동 중에서 부모가 주는(Transfer) 형태에 주된 초점을 맞추었지만, 비슷한 형태의 가족 내 경제문제인 구성원간 선물 증여(gift-giving)도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주목 받고 있다. 선물 증여 행위는 세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로서 인간 관계에 있어 다양한 기능을 갖는다. 선물은 단순한 감사표현에서 나아가 주고 받는 사람 간의 관계 형성과 확립 및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Belk 1979) 사회적 의미 및 경제적 신호로서 작동하기도 한다(Camerer 1988). 가족 관계에서도 애정 표현 등의 이유로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으며, 친족 관계의 돈독함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같은 기념일에 선물을 전달하기도 한다(Caplow 1982). 특히 선물이 관계에 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어(Rupp 1999) 가족을 포함한 인간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이러한 가족 내 유산 상속 및 선물 증여 행위는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이며 보편적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족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의사결정 문제라는 점에서 그 분석의 의의가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산과 선물의 동기가 부모의 이타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연구들이 많고, 선물의 경우 기능적 측면과 사회적 함의에 대한 연구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자녀의 부모에 대한 사랑을 포함하며 그 선물에 대한 지출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Becker의 “못된 자녀 이론(Rotten-Kid

theorem)”에서 연구된 자녀와 부모의 효용함수 및 분석 방식을 응용하여 자녀의 부모에 대한 마음을 포함한 선물 지출 의사결정 과정을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변수들의 현실 부합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선물 증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 간의 사회적 관계 강화와 긴장 등 사회적 의미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려 한다.

제 2장 문헌 연구 및 가설 설정

제 1절 못된 자녀 이론(Rotten Kid Theorem)과 비판

Becker(1974, 1976)에 따르면, 이기적인 자녀와 이타적인 부모의 경제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부모의 상속이 결정되고 난 뒤에 자녀가 자신의 소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그 자녀는 가족 전체의 입장에서 효용을 극대화 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이 이론은 개인의 효용을 정의하는 단계부터 시작해 소득과 가격효과를 수식으로 설명하고, 가족의 영역까지 확장하여 부모와 자식간의 효용 극대화 식을 도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위 Becker의 연구는 부모가 물려주는 유산과 자식의 이기적인

동기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현실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Bruce and Waldman 1990). Hirshleifer(1977, 1985)는 못된 자녀 이론이 여러 기간(multi-period)의 조건에서도 성립한다는 것을 반박했고 한 기간(single-period)에서도 의사결정 시점에 따라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녀의 효용이 다른 누구에 의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달렸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며(Bergstrom 1984), 부모의 효용이 자녀의 행동에 의해 결정될 경우 자녀는 자신의 의사결정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어 부모에게 적은 관심(attention)을 보일 것이라는 반박도 등장했다(Bernheim et al. 1985).

이처럼 부모의 이타성에서 비롯한 효용 극대화를 논한 못된 자녀 이론은 유산을 물려주는 상황에서만 작동한다는 한계점이 있고 상대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그 효과가 적다는 비판이 존재한다(Becker 1988). 하지만 Becker가 도입한 가족 구성원의 효용함수 접근방식이나 그 도출 과정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행동들을 해석하는 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또한 Becker(1988)는 자녀의 인적 자본으로서의 가치 향상을 위한 투자와 사회적 안정성 확보 및 노인 계층 지원 과정에 그의 접근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자는 못된 자녀 이론에서 등장한 가족 관계 내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효용 함수, 소득식 등을 수정해 자녀가 부모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를 분석하는 도구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모의 이타심만 고려하며 유산 상속 가정을 필요로 하는 한계에서 벗어나고,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과 부모의 반응을 포함하여 선물 지출이 각 변수들의 조건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제 2절 가족 내 선물 증여(gift-giving) 행위

선물을 주고 받는 행위는 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간의 관계를 반영하며 소비자 활동 중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비활동이다(McGrath et al. 1993). 선물 증여 행위를 이해하는 다양한 접근법이 존재하는데, 기본적인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상대방의 선호를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물건으로 선물을 증여하는 행위는 비효율적이라고 규정한다. 선물을 고르거나 물건을 전달하는 일련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인 것이다(Carmerer 1988). 하지만 현실에서 선물을 주고 받는 현상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이를 설명하기 위해 현금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한 반감이나 거래비용 및 시장 실패에 원인을 돌린다. 혹은 구하기 힘든 선물을 주거나 좋아하는 물건을 찾아 주는 것이 시장 구조

개선(market arrangement)에 기여한다고 보기도 한다(Hemenway 1984).

반대로 사회적인 관계에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주거나, 일종의 의무감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며, 대인 관계의 강화 등의 목적을 위해 선물을 주기도 한다(Goodwin et al. 1990). 선물의 친밀감 혹은 애정을 나타낸다는 특성상 주로 친구나 부모, 자녀, 형제 등 자신과 가까운 사회적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Belk 1979), 선물 증여자와 마주치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개인, 가족, 조직들도 그 대상이 되곤 한다(Garner and Wagner 1991). 선물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방식에서는 선물 증여가 자신의 정체성을 표출하거나, 친밀함 또는 불편함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고, 사회적 지위 불안(긴장)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Schwartz 1967), 이는 가족 내에서도 가족 결속력의 확인과 의미 전달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선 서론 부분에서 언급했던 Caplow(1982)의 크리스마스 와 친족네트워크에 관한 논문에 따르면 부모 와 형제 같은 1차적인 관계에서 선물 교환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를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적인 조직과 비교했을 때 선물을 주지 않는 것에 상대적으로 더 큰 위험이 따른다는 해석으로 설명했다(강희숙 2005에서 재인용).

물론 선물 대상의 범위에 있어서 문화권 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멕시코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보다 선물을 주는 친족의 범위가 더 넓다는 연구도 있으며(Jolibert and Fernandez-Moreno 1983),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선물 대상을 넓게 선정해 직장상사나 동료, 거래처 등 직장과 연관된 선물활동이 보다 활발하다는 연구도 있다(Park 1998).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족 내, 특히 부모와 자녀 간 선물이 활발하다는 점은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가족 내 선물 증여 행위를 분석하는 것은 소비활동에서의 선물의 큰 비중을 염두 하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선물의 경제적·사회적 의미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연구는 가족 관계 내에서의 소비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기업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에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못된 자녀 이론을 응용하여 설정한 가족 구성원들의 효용함수를 설정하고, 함수의 현실 적합성 분석을 토대로 가족 내 선물증여 행위의 결정과정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가족 구성원 내의 사회적 관계 강화 및 지위 불안 감소 수단으로서의 선물 증여 행위를 분석하기 위해, 자녀가 둘 이상 있는 가족 내에서 다른 자녀의 선물 증여 행위에 영향을 받는 정도와 반응에 대해 연구하려 한다.

제 3절 개념적 틀 및 가설 설정

우선 분석의 기초가 되는 못된 자녀 이론의 효용 함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Becker(1974)에 제시되어 있는 효용 함수는 다음과 같다.

$$U_i = x_i^{a_i} U_j^{b_i} = x_i^{a_i/(1-b_i b_j)} x_j^{a_j b_i/(1-b_i b_j)} = x_i^{\alpha_i} x_j^{\beta_i}$$

$$U_j = x_j^{a_j} U_i^{b_j} = x_i^{a_i b_j/(1-b_i b_j)} x_j^{a_j/(1-b_i b_j)} = x_i^{\alpha_j} x_j^{\beta_j}$$

여기서 x_i 와 x_j 는 각각 i 와 j 라는 사람의 소비를 의미하고 a_i, a_j 는 자신의 소비에 대한 효용을 결정하는 함수이며 b_i, b_j 는 타인의 효용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함수를 뜻한다. 식을 정리하면 가장 우측 변의 형태로 정리되는데 α 와 β 는 a 와 b 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각 사람의 소비량을 기준으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결정하는 함수이다.

본 연구자는 못된 자녀 이론에서 두 사람의 효용이 서로의 효용 함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응용하고 부모의 이타심(Altruism)뿐 아니라 자녀의 부모에 대한 마음을 포함하며, 이를 부모와 두 자녀 간의 선물 증여 행위에 적용시켜 다음과 같은 효용 함수를 정의했다.

$$U_1 = 1 - e^{-(K_1 - x_1)} + \beta_1 U_3$$

$$U_2 = 1 - e^{-(K_2 - x_2)} + \beta_2 U_3$$

$$U_3 = 1 - e^{-\alpha(x_1 + x_2)} + \beta_3 (U_1 + U_2)$$

먼저 부모에게 두 자녀가 있는 상황을 가정하였으며, 부모의 효용은 U_3 , 두 자녀의 효용은 각각 U_1, U_2 로 나타낸다. $1 - e^{-(K_i - x_i)}$ 형태의 식은 선물의 지출(x_i)로 인한 자산(K_i)의 감소에 대해 각 자녀의 효용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β_1, β_2 는 각 자녀가 부모님의 기쁨에서 얻는 행복감의 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따라서 두 자녀의 효용은 부모님 선물 지출로 인한 효용감소와 부모의 기쁨으로부터 얻는 효용증가 부분의 합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의 효용은 선물 지출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며 부모님의 효용이 커질수록 증가한다.)

부모의 효용을 살펴보면, $1 - e^{-\alpha(x_1 + x_2)}$ 형태의 식은 선물 금액이 작을수록 더 효용 감소가 크다는 것, 그리고 α 의 수준으로 선물 지출에 대한 효용을 느낀다는 것을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α 는 선물 지출에 대해 부모가 느끼는 기쁨의 강도를 의미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 또한 β_3 는 자녀의 기쁨에서 얻는 행복감의 강도(이타심; Altruism)를 나타내는 값으로 그 수준에 따라 자녀들의 효용에서 받는 영향의 크기가 결정된다. (부모의 효용은 받는 선물이 증가할수록 커지며 자녀의 효용이 커질수록 증가한다.)

하지만 위 효용식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선 제약조건이 필요하다.

$$0 < \beta_1, \beta_2 < 1$$

$$\beta_1 + \beta_2 = 1$$

$$0 \leq \beta_3 \leq 1, \quad \alpha > 0$$

먼저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β_1, β_2)이 존재하지만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이익을 크게 느끼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0과 1사이의 값으로 정의하며, 개인의 절대적인 값이 아닌 두 자녀 간 상대적인 크기로 나타내어 합이 1이 되도록 정의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β_3)도 자신의 효용보다 자녀의 효용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0에서 1까지로 정의하였다.

앞선 효용 함수의 정의를 통해서 본 연구의 기초 전제를 설정할 수 있는데,

[기본 전제: 각 자녀의 부모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beta_1 = \beta_2 = 0$), 자녀는 선물하지 않을 것이다. ($x_2^* = x_1^* = 0$)]

라는 전제이며, 자녀의 효용 함수에서 부모의 효용의 영향이 사라지게 되면 선물 지출이 없는 것이 최적이 되는 상황, 즉 파라미터 제약 조건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음을 가정하므로, 효심이 있어 부모에게 선물을 한다는 상황을 설정한 후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두 자녀와 부모의 의사 결정에 관한 논의로 넘어가면, 자녀 1과 자녀 2의 최적 선물 지출(x_1, x_2)에 대한 1계 도함수 조건은 다음과 같다¹.

$$\begin{aligned} \frac{\partial U_1}{\partial x_1} &= -e^{-(K_1-x_1)} \cdot (Z + \beta_1\beta_3) + \alpha\beta_1 \cdot e^{-\alpha(x_1+x_2)} \\ &= 0 \quad (f.o.c) \quad \dots \quad (1) \end{aligned}$$

$$\begin{aligned} \frac{\partial U_2}{\partial x_2} &= -e^{-(K_2-x_2)} \cdot (Z + \beta_2\beta_3) + \alpha\beta_2 \cdot e^{-\alpha(x_1+x_2)} \\ &= 0 \quad (f.o.c) \quad \dots \quad (2) \end{aligned}$$

두 자녀의 효용함수의 1계 도함수 조건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H_1 : 두 자녀가 부모의 기쁨에서 느끼는 행복감이 동등할 때($\beta_1 = \beta_2$), 더 부유한 자녀가 더 선물 지출을 많이 한다. ($K_1 - x_1^*) = (K_2 - x_2^*)$ or ($x_2^* - x_1^*) = (K_2 - K_1)$]

식 (1)과 식(2)에 두 β 값이 동등하다는 조건을 적용한 후 정리하면,

$$-e^{-(K_1-x_1)} = -e^{-(K_2-x_2)} \quad \Leftrightarrow \quad (K_1 - x_1^*) = (K_2 - x_2^*)$$

¹ 이후 등장하는 각 수식들의 도출 과정은 부록에 첨부

$$\Leftrightarrow (x_2^* - x_1^*) = (K_2 - K_1)$$

이라는 결과가 나오며 더 부유한(큰 K_i 를 가진) 자녀가 더 많은 선물 지출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식 (1)과 (2)를 x_1^* 와 x_2^* 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x_1^* = \frac{\alpha + 1}{2\alpha + 1} \cdot \left(\ln \frac{\alpha\beta_1}{1 - \beta_2\beta_3} + K_1 \right) - \frac{\alpha}{2\alpha + 1} \cdot \left(\ln \frac{\alpha\beta_2}{1 - \beta_1\beta_3} + K_2 \right) \quad \dots \quad (3)$$

$$x_2^* = \frac{\alpha + 1}{2\alpha + 1} \cdot \left(\ln \frac{\alpha\beta_2}{1 - \beta_1\beta_3} + K_2 \right) - \frac{\alpha}{2\alpha + 1} \cdot \left(\ln \frac{\alpha\beta_1}{1 - \beta_2\beta_3} + K_1 \right) \quad \dots \quad (4)$$

위 식으로부터 선물의 지출과 효심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frac{\partial x_1^*}{\partial \beta_1} = \frac{1}{2\alpha + 1} \left(\frac{1}{\beta_1} \right) + \frac{\alpha}{2\alpha + 1} \cdot \frac{1 - 2\beta_1\beta_3}{\beta_1(1 - \beta_1\beta_3)} > 0$$

$$\frac{\partial x_2^*}{\partial \beta_2} = \frac{1}{2\alpha + 1} \left(\frac{1}{\beta_2} \right) + \frac{\alpha}{2\alpha + 1} \cdot \frac{1 - 2\beta_2\beta_3}{\beta_2(1 - \beta_2\beta_3)} > 0$$

$\frac{\partial x_1^*}{\partial \beta_1}$ 와 $\frac{\partial x_2^*}{\partial \beta_2}$ 의 값이 양수가 나왔다는 것은 부모의 기쁨에 대해 느끼는 마음(β_1, β_2)이 커짐에 따라 부모에 대한 선물 지출이 함께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H₂: 자녀가 부모의 기쁨에서 더 큰 행복감을 느낄수록, 부모에 대한 선물 지출도 증가 한다. ($\frac{\partial x_1^*}{\partial \beta_1} > 0$, $\frac{\partial x_2^*}{\partial \beta_2} > 0$)]

또한 부모가 자녀의 선물에 대해 느끼는 기쁨의 강도(α)와 자녀의 선물 지출 간의 관계도 식 (3)과 (4)를 통해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다. (단, α 가 유의미하게 크다고 가정)

$$\begin{aligned} \frac{\partial x_1^*}{\partial \alpha} &= -\frac{1}{(2\alpha + 1)^2} \left\{ \ln \frac{\alpha\beta_1}{1 - \beta_2\beta_3} + \ln \frac{\alpha\beta_2}{1 - \beta_1\beta_3} + K_1 + K_2 \right\} - \frac{1}{(2\alpha + 1)(\alpha)} \\ &= \frac{\partial x_2^*}{\partial \alpha} < 0 \end{aligned}$$

$\frac{\partial x_1^*}{\partial \alpha}$ 과 $\frac{\partial x_2^*}{\partial \alpha}$ 이 음의 값을 가진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의 선물에 대해 더 크게 기쁨을 느낄수록 자녀의 선물 지출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H₃: 부모가 작은 선물에도 크게 기뻐할수록(α 가 클수록), 자녀의 선물 지출은 감소 하고, 큰 선물에 적게 기뻐할수록(α 가 작을수록), 자녀의 선물 지출은 증가한다. ($\frac{\partial x_1^*}{\partial \alpha} < 0$, $\frac{\partial x_2^*}{\partial \alpha} < 0$)]

따라서 자식을 위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좋은 부모’는 ‘더 기뻐하는 부모’이며 부모가 자녀의 선물 지출을 줄이고자 하면 기쁨을

더 표현하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자녀를 생각하는 이타심(β_3)이 자녀의 선물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rac{\partial x_1^*}{\partial \beta_3} = \frac{\alpha + 1}{2\alpha + 1} \cdot \left(\frac{\beta_2}{1 - \beta_2\beta_3} \right) - \frac{\alpha}{2\alpha + 1} \cdot \left(\frac{\beta_1}{1 - \beta_1\beta_3} \right) \quad \dots \quad (5)$$

$$\frac{\partial x_2^*}{\partial \beta_3} = \frac{\alpha + 1}{2\alpha + 1} \cdot \left(\frac{\beta_1}{1 - \beta_1\beta_3} \right) - \frac{\alpha}{2\alpha + 1} \cdot \left(\frac{\beta_2}{1 - \beta_2\beta_3} \right) \quad \dots \quad (6)$$

위 식을 보면 두 자녀의 β 크기에 따라 식의 부호가 바뀌는 불안정(unstable)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한 자녀가 자신이 부모의 기쁨에서 행복감을 얻는 정도가 다른 자녀보다 클 때 선물에 대한 지출은 적어지며, 오히려 다른 자녀가 자신보다 부모의 기쁨을 더 크게 좋아할 때 선물에 대한 지출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부모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부모의 작은 기쁨에만 만족하지 않는 자녀(작은 β 를 가진 자녀)가 부모의 기쁨을 더 크게 하기 위해 더 많이 지출하므로 더 ‘효자’ 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위 식에서 두 자녀의 부모의 대한 마음($\beta_1 = \beta_2$)이 같다는 조건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H₄: 두 자녀가 부모의 기쁨에서 느끼는 행복감이 동등할 때($\beta_1 =$

β_2), 부모가 자녀의 기쁨에서 느끼는 행복감(자녀에 대한 이타심)이 클수록 자녀는 더 선물 지출을 많이 한다. ($\frac{\partial x_1^*}{\partial \beta_3} > 0, \frac{\partial x_2^*}{\partial \beta_3} > 0$)]

즉, 이는 두 자녀의 β 값이 동일할 때(혹은 매우 유사할 때) 부모의 이타심이 커질수록 선물 지출을 늘린다는 의미이며 두 자녀가 부모를 동등하게 위할 때 부모가 자녀를 더 생각할수록 자녀의 선물지출이 늘어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가족 내 효용 함수에 관한 가설과 함께, Goodwin et al. (1990)을 비롯한 다수의 연구에서 등장하는 선물 증여의 사회적 관계 및 그 영향을 파악하고자 추가적인 가설을 수립했다. 사회적 관계의 강화와 긴장에 선물 증여가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볼 때(Schwartz 1967), 두 자녀와 부모를 포함한 가족 내에서도 각 주체의 선물 증여 행위는 다른 구성원에게 관계 강화와 긴장감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에게 선물을 하는 상황에서 각 자녀는 서로의 선물에 대해 신경 쓸 수 있으며, 함께 발생하는 선물에 대한 부담감은 더 나은 자녀로 인식되기 위해 각자의 효심이 선물 금액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더 강화할 수 있다. 이로부터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H₅ - 1: 다른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에 더 크게 신경을 쓸수록 자신이 부모에게 주는 선물(x_1^*) 선택 시 느끼는 부담감이 커질 것이다.]

[H₅ - 2: 자녀가 부모의 선물에 느끼는 부담감이 클수록 부모에 대한 마음(β_1)이 선물(x_1^*)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를 강화할 것이다.]

이는 다른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이 자신이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부담감이 클수록 같은 효심(β_1) 조건이더라도 더 많은 선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자는 위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연구를 통해 가족 내 선물 증여 행위를 분석하고 각 변수들의 관계 및 효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

제 3장 실증연구 : 가족 내 선물 증여 행위 연구

제 1절 Pre-test 실험 방법 및 자료 수집

실증연구에서는 앞의 가설에서 살펴보았던 가족 내 선물 증여 행위의 특징들이 현실에서도 적용가능한지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자녀와 부모의 효용 함수 모델의 연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Pre-Test를 실시했다. Pre-Test 설문 실험은 온라인 설문조사 프로그램(www.Qualtrics.com)을 이용해 제작했으며 선물 전달의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을 제시하고 가족 내 선물 전달 행태를 20대~50대 사이의 일반인 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세부적인 가설 검증을 위해 응답자로부터 (1) 복권 당첨금에서 부모를 위해 사용할 금액, (2) 실제 선물지출 금액, (3) 수입이 다른 상황을 가정했을 때 다른 자녀와의 부모님 선물지출 금액 분담 정도, (4) 부모님의 비싼 선물에 대한 반응도가 차후 선물 지출 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질문했으며, 차후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자녀의 유무, 형제자매의 유무 등을 함께 질문하였다.

먼저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자신과 형제(없을 경우 있다고 가정)사이에 유의미한 수입 차이가 있다면 선물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하였다. 해당 질문은 다음과 같다.

Q8) 다른 형제자매가 본인보다 수입이 4배 많은 경우를 가정했을 때, 다른 형제자매와 부모님 선물을 어느 정도 분담하여 구매하시겠습니까? (형제자매가 없다면 있다고 가정)

다음으로 가설 3 검증을 위해 부모가 더 비싼 선물에 대해 기뻐할 때 그 다음 선물 금액을 어떻게 결정할지를 질문하였다.

Q7) 만약 부모님께서 상대적으로 비싼 선물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았다면, 다음 선물 금액을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또한 나머지 가설 검증을 위해 x_i^* 에 해당하는 실제 부모님 선물 지출 금액을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조사하였다².

Q4) 평소에 혹은 기념일에 부모님께 선물을 드릴 때 평균적으로 얼마를 지출하시는 편입니까? 그리고 그 금액은 월 수입(용돈 포함)의 몇 %입니까?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의 β 의 값을 분석하기 위해 복권 당첨이라는 가상적인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행동할지를 질문하였다³.

Q3-1) 응답자 본인이 복권에서 100만원이 당첨되어 당첨금을 수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당첨금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면 어느 곳에 얼마나 사용하시겠습니까? (4분야 : 본인을 위해 소비/ 친구들과 노는 데 사용/ 부모님 선물에 사용/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

Q3-2) 본인이 아닌 다른 형제 자매가 100만원에 당첨되었다면 어떻게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4분야 : 위와 동일)

² 사전조사에서 현재 부모가 아닌 응답자들에게만 질문하였다.

³ 사전조사에서 Q3-1)은 부모가 아닌 형제가 있는 자녀와 없는 자녀에게 모두 질문하였고, Q3-2)는 형제가 있는 자녀에게만 질문하였으며, Q3-3)은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서만 질문하였다.

Q3-3) 응답자 본인이 복권에서 100만원이 당첨되어 당첨금을 수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당첨금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면 어느 곳에 얼마나 사용하시겠습니까?⁴ (4분야 : 부모님 선물에 사용 ▶ 자녀 선물에 사용 외 동일)

Q3-1)에서는 자신이 부모의 기쁨에서 얻는 행복의 강도 (β_1)에 대한 지표를 얻고자 했고, Q3-2)에서는 다른 자녀가 부모의 기쁨에서 얻는 행복의 강도(β_2)에 대한 지표를 얻고자 했으며, Q3-3)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기쁨에서 얻는 행복의 강도(β_3)에 대한 지표를 얻고자 했다.

본 사전 조사에서 위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분석해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효용 함수에 대한 네 가지 가설들을 검증해 보았다.

제 2절 Pre-Test 결과 및 논의

1. 가설 1 검증

형제와의 선물 지출 분담에 관한 설문(위 Q8)은 가설 1의 $(x_2^* - x_1^*) =$

⁴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Q> 최근 자녀로 받은 선물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선물의 예상 가격은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을 추가적으로 실시했다.

($K_2 - K_1$)가 성립하는지, 즉 더 부유한 자녀가 더 많은 선물 지출을 하는 것이 현실에서도 성립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설문에서 자신 중심적인 편향을 줄이고 보다 객관적인 답을 얻기 위해 다른 형제자매가 4배 더 수입이 많음을 가정하였고 이 때 선물 지출 금액 분담이 어떤 비율로 이루어지는지 측정하였다. 그 결과 자신의 분담금으로는 평균 40.25% 분담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다른 형제자매에겐 59.75%를 분담하게 할 것이라 응답했으며 둘 간의 차이가 유의미했다($M_{\text{자신-형제}} = -19.51, p \leq 0.00$).

또한 가설 1에서 가정한 $\beta_1 = \beta_2$ 조건을 적용시켜서 형제가 있다고 응답한 표본 중에서 Q3-1)과 Q3-2)에서 부모님에게 같은 금액을 드릴 것으로 답변한 사람을 추출하여 분담금의 평균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자신 분담금의 평균은 34.64%였고 형제 분담금의 평균은 65.36%로 이전보다 차이가 증가했다($M_{\text{자신-형제}} = -30.71, p \leq 0.00$).

따라서 가설 1에서 검증하고자 한 “부모에 대한 마음이 같을 때 더 부유한 자녀가 더 지출한다”는 가설은 비록 수입의 정확한 차이(20:80)만큼은 아니지만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2. 가설 2 검증

자녀가 부모의 기쁨에 행복감을 느끼는 강도(β_1 or β_2)를 설문 Q3-1)을 통해 측정하였고, 실제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는 금액 및 월수입에 대한 비중을 Q4)를 통해 측정했다. 분석 대상은 설문 응답자중 자녀가 없는 사람을 표본으로 하여 자녀 역할인 사람의 데이터를 얻고자 하였으며 Q3-1)에서 얻은 답변 중 부모에게 선물한 금액을 β_1 에 대한 측정치로 보았고, Q4)에서 선물 지출 금액의 월 소득 비중(%)을 x_1^* 로 설정했다.

분석 방법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종속변수 x_1^* 에 대해 독립변수 β_1 의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β_1 의 계수는 0.4로 나타났고 그 영향이 유의미했다($R^2 = .126$, $p < 0.05$). 따라서 계수의 값이 양수이고 유의미한 값으로 나타났으므로 β_1 이 커질수록 x_1^* 이 증가한다는 가설 2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3. 가설 3 검증

Q7)의 질문을 통해 부모가 더 비싼 선물에 대해 기뻐할 때(더 작은 α 값을 가질 때) 더 저렴한 선물을 구매할지,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지, 더 비싼 선물을 구매할지를 조사하였으며 이는 가설 3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α 값(부모님의 해당 선물에 대해 기뻐하는 강도)에

대한 x_1^* 의 변화를 분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67%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변했고, 나머지 33%는 더 비싼 선물을 구매할 것이라 답변했으며, 더 저렴한 선물을 구매한다는 답변은 없었다. 현재 상태 유지를 2의 값으로 코딩하고, 더 비싼 선물에 대한 선택을 3의 값으로 코딩한 후 검정값(=2)에 대해 T-test를 시행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큰 선물에 적게 기뻐할수록(더 작은 α 값을 가질수록) 더 비싼 선물을 한다는 결과가 지지되었다($p \leq 0.00$). 하지만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차후 부모가 더 값싼 선물에 대해서 기뻐할 때(더 큰 α 값을 가질 때) 선물 구매 응답을 추가적으로 질문할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4. 가설 4 검증

Pre-Test에서는 수집한 데이터의 수가 작아 ‘두 자녀를 가진’ 부모를 구분해 그 사람의 두 자녀 간의 β 값 차이($\beta_1 - \beta_2$)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기존 가설 4의 관련 식 (5)와 (6)에서 부모의 이타심인 β_3 값이 자녀의 선물 지출(x_1^*)에 미치는 영향이 불안정(unstable)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Q3-3)에서 자녀에게 주는 당첨금의 비율을 부모가 자녀의 기쁨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강도(β_3)로 설정하고, 해당 응답자들에게 함께 질문한 “자녀에게서 받은 선물의 예상 금액”을 x_1^* 로 설정한 뒤, 종속변수 x_1^* 에 독립변수 β_3 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식 (5)와 (6)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β_3 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p=0.2$).

Pre-Test 과정에서 보다 의미 있는 분석을 위해 두 가지의 보완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다. 먼저 실제로 형제가 있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β_i 들을 측정할 필요가 있고, x_1^* 를 결정하는 주체를 일정 연령 집단으로 한정해 “못된 자녀 이론”의 취지와 유사한 집단의 데이터를 측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통해 보다 적합한 연령 집단에서 형제가 있는 자녀들의 응답으로부터 β_3 의 선물 지출(x_1^*)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보다 큰 수의 표본에서 위 분석을 실시한다면 가설 4에 대한 검증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다.

제 3절: 본 실험 방법 및 자료 수집

Pre-Test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실험의 표본 집단을 자녀가 없는 2~30대의 형제자매가 한 명 이상 있는 사람들로 설정했으며, 설문 문항들을 추가해 Pre-Test에서 검증하지 못한 가설 5-

1과 5-2를 함께 검증하고자 했다.

표본은 총 136명(남성:27, 여성:109)의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자녀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설문은 Qualtrics 프로그램으로 제작했으며, 가설 검증을 위해 (1) 복권 당첨금에서 부모를 위해 사용할 금액과 같은 상황에서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위해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 (2) 실제 부모님을 위한 선물지출 금액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3) 수입이 다른 상황을 가정했을 때 다른 자녀와의 부모님 선물지출 금액 분담 정도, (4) 부모님의 비싼/저렴한 선물에 대한 반응도가 차후 선물 지출 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질문했으며, 추가적으로 (5) 부모님 선물을 선택할 때 느끼는 부담감과 (6) 다른 형제자매의 부모님 선물을 신경 쓰는 정도를 질문했다.

가설 1을 검증하고자 하는 설문 문항은 Pre-Test와 동일하며, 가설 2와 4를 위한 “복권 당첨 시 4분야에 사용하는 비율” 설문은 자기 자신의 경우(본인이 복권 당첨)와 다른 형제자매의 경우(다른 형제자매가 복권 당첨) 예상되는 결과, 부모님의 경우(부모님이 당첨) 예상되는 결과를 조사했다. 이를 통해 자신이 부모의 기쁨에서 얻는 행복의 강도 (β_1)와, 다른 자녀가 부모의 기쁨에서 얻는 행복의 강도 예측(β_2^e), 부모가 자녀의 기쁨에서 얻는 행복의 강도 예측(β_3^e)을 도출했다.

가설 3을 위한 설문은 “부모가 더 비싼 선물에 대해 기뻐할 때 그

다음 선물 금액을 어떻게 결정할지”와 “부모가 더 저렴한 선물에 대해 기뻐할 때 그 다음 선물 금액을 어떻게 결정할지”를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선물 증여 과정에서 형제자매 간의 사회적 긴장 및 관계 강화와 관련된 가설인 가설5-1과 5-2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추가했다.

Q11. 다른 형제 혹은 자매와 부모님 선물을 따로 전달한다고 생각할 때, 다른 형제 혹은 자매의 선물 금액이 얼마나 신경 쓰이십니까?

Q12. 부모님 선물을 고를 때 본인이 느끼는 부담감의 정도를 선택해주시오.

위 질문들을 통해 다른 형제자매의 선물 금액을 신경 쓰는 정도(Cn_{ot})가 선물 증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고, 부담감(Bd)이 다른 형제자매의 선물을 신경 쓰는 정도(Cn_{ot})에 유의미한 효과를 전달하는지 검증했다.

제 4절: 실험 결과 및 논의

1. 가설 1 검증

새로운 표본에서 수집한 형제와의 선물 지출 분담에 관한

설문(Q10⁵)은 가설 1의 $(x_2^* - x_1^*) = (K_2 - K_1)$ 가 성립하는지, 더 부유한 자녀가 더 많은 선물 지출을 하는 지를 검증하기 위한 질문이다. Pre-Test와 같이 다른 형제자매가 4배 더 수입이 많음을 가정하였고 이 때 선물 지출 금액 분담이 어떤 비율로 이루어지는지 측정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에서 자신 분담금의 평균값은 43.41% 였으며, 다른 형제자매 분담금 평균값은 56.59%였다.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둘 간의 차이가 유의미했다($M_{\text{자신-형제}} = -13.16, p \leq 0.00$).

또한 가설 1에서 가정한 $\beta_1 = \beta_2$ 조건을 적용시켜서 형제가 있다고 응답한 표본에 대해 분담금의 평균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자신 분담금의 평균은 43.93%였고 다른 형제자매 분담금의 평균은 56.07%로 나타났다($M_{\text{자신-형제}} = -12.14, p=0.024$).

Pre-Test의 결과와 같이 가설 1 “부모에 대한 마음이 같을 때 더 부유한 자녀가 더 지출한다” 는 가설은 수입의 정확한 차이(20:80)만큼은 아니지만 성립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2. 가설 2 검증

⁵ 이후 설문 문항은 부록에 첨부된 본 실험 설문 문항 번호에 해당

본인이 부모의 기쁨에 행복감을 느끼는 강도(β_1)와 예상되는 다른 형제자매의 효심(β_2^e)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 Q2)와 Q3)을 질문하였고, 선물 금액(x_1^*)를 측정하기 위해 실제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는 금액이 월수입에 대한 비중을 Q6)를 통해 질문했다. 답변 중 복권 당첨 시 부모에게 선물한 금액을 β_1 에 대한 추정 지표로 보았고, 가설 수립 단계에서 가정한 $\beta_1 + \beta_2 = 1$ 을 반영하기 위해 복권 당첨 시 본인이 부모님을 위해 사용할 금액(A)과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위해 사용할 금액(B) 예측 간의 상대적 비율(A/A+B)로 β_1 을 설정했다. Q4)에서 선물 지출 금액의 월 소득 비중(%)을 x_1^* 로 설정했다.

분석 방법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종속변수 x_1^* 에 대해 독립변수 β_1 의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β_1 의 표준화 계수는 0.200로 나타나 그 영향이 유의미했다($R^2 = .040$, $p < 0.05$). 따라서 계수의 값이 양수이고 유의미한 값으로 나타났으므로 β_1 이 커질수록 x_1^* 이 증가한다는 가설 2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3. 가설 3 검증

Q8)과 Q9)를 통해 부모가 더 비싼 선물에 대해 기뻐할 때(더 작은

α 값을 가질 때)와 더 저렴한 선물에 대해 기뻐할 때(더 큰 α 값을 가질 때) 더 저렴한 선물을 구매할지,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지, 더 비싼 선물을 구매할지를 조사하였으며 이는 가설 3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α 값(부모님의 해당 선물에 대해 기뻐하는 강도)에 대한 x_1^* 의 변화를 분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더 비싼 선물에 기뻐하는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의 80.1%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변했고, 나머지 19.1%는 더 비싼 선물을 구매할 것이라 답변했으며, 더 저렴한 선물을 구매한다는 답변은 0.7%였다. 반대로 더 저렴한 선물에 기뻐하는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의 59.6%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변했고, 나머지 38.2%는 더 비싼 선물을 구매할 것이라 답변했으며, 더 저렴한 선물을 구매한다는 답변은 2.2%였다.

설문 결과는 오히려 가설과 정반대였으며, 부모님이 작은 선물에도 기뻐할수록 자녀는 더 큰 선물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효용함수를 바탕으로 하는 가설과는 다르게 작은 것에도 기뻐하는 부모님에게 더 큰 선물을 해드려 더 기쁘게 만들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4. 가설 4 검증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 ‘부모가 자신에게 줄 것으로 기대되는 복권 당첨금의 비율’을 부모가 자녀의 기쁨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강도(β_3^e)의 예측값으로 설정하고, 선물 지출 금액의 월 소득 비중(%)을 x_1^* 로 설정 후 분석했다.

가설 4에 해당하는 “ $\beta_1 - \beta_2 = 0$ 조건에서 β_3^e 가 x_1^* 에 양(+의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종속변수 x_1^* 에 독립변수 β_3^e 인 회귀분석을 실시했지만, 예상과 달리 β_3^e 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아 가설이 기각되었다($p=0.7$).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이유로는 부모님의 자신을 위한 마음이 크다고 생각되어도 직접적으로 선물 금액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가설과는 무관하지만, 자신의 효심(β_1)이 선물 금액(x_1^*)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부모님의 자식 사랑(β_3^e , 예상)이 강화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F.Hayes의 조절효과 모델을 분석하는 회귀분석 방식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 그 조절변수($\beta_1 * \beta_3^e$)가 양(+의 효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5$). 이는 자녀 본인 입장에서 부모가 자녀의 기쁨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강도(β_3^e)가 크다고 생각되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선물 금액으로 더 크게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원래의 가설과 일치하는 분석 결과는 아니지만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이타심이

선물 금액으로 이어지는 간접적인 효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5. 가설 5-1, 5-2 검증

가설 5-1과 5-2는 다른 자녀와 자신이 함께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선물의 사회적 긴장 및 관계 강화 기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로의 선물을 신경 쓰는 정도가 부담감 및 선물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부담감이 클수록 같은 효심(β_1) 조건이더라도 더 많은 선물을 하게 되는지를 검증했다.

먼저 가설 5-1을 검증하기 위해 Q12에서 조사한 선물 선택 시 느끼는 부담감을 느끼는 정도(Bd)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다른 자녀의 부모님 선물 금액을 신경 쓰는 정도(Cn_ot)를 독립변수로 설정한 뒤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표준화계수 값이 0.35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001$). 즉, 다른 자녀의 부모님 선물 금액을 더 신경 쓸수록 부모님 선물 선택 시 느끼는 부담감이 더 커진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설 5-2 검증을 위해 F.Hayes의 조절효과 모델을 이용하여 종속변수를 x_1^* , 독립변수를 β_1 , 조절변수를 Bd로 설정한 뒤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β_1 의 x_1^* 증가 효과가 유의했고($p < 0.01$), $\beta_1 * Bd$ 의

x_1^* 증가 효과가 엄격하게 유의하진 않았지만 거의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p < 0.10$). 이를 통해 부모님 선물 선택에 관한 부담감(Bd)이 자녀의 효심(β_1)이 선물 금액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를 조절하며, 부담감이 클수록 효심의 선물 금액 증가 효과가 커진다는 가설 5-2가 지지되었다.

제 4장 결론

제 1절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못된 자녀 이론과 선물 증여 행위에 관한 문헌 연구와 실증연구를 통해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선물 증여 행위의 의사결정 행태를 분석했다. 특히 두 자녀와 부모로 구성된 효용 함수 모델을 사용해 자녀가 부모에게 선물을 하는 과정에서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부모의 선물에 대한 반응, 부유한 정도 등의 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았다.

실증연구에서는 5가지 가설의 검증을 위해 형제자매가 있는 20대~30대 연령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1) 본인과 형제자매가 복권 당첨금에서 부모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 생각하는 금액, (2) 부모가 복권

당첨 상황에서 자녀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 생각하는 금액, (3) 실제 선물 지출 금액과 월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4) 수입이 다른 상황에서 다른 자녀와의 부모님 선물 지출 금액 분담 정도, (5) 부모님의 비싼 선물에 대한 반응도가 차후 선물 지출 결정에 미치는 영향, (6) 다른 형제자매의 부모님 선물에 신경 쓰는 정도와 선물 선택 시 부담감 등을 질문하여 그 응답을 분석했다.

그 결과 부모에 대한 마음이 같을 때 더 부유한 자녀가 더 많은 선물 지출을 한다는 가설 1과 부모의 기쁨에 더 큰 가치를 느낄수록 부모님께 더 많은 선물을 한다는 가설 2가 검증되었지만, 선물에 대해 부모가 느끼는 기쁨의 강도(혹은 기쁨의 표현)와 자녀의 선물 지출 금액이 반비례할 것이라는 가설 3은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나 부모님이 작은 선물에도 기뻐하면 더 큰 선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커질 때 동등하게 부모를 생각하는 두 자녀의 선물 금액도 함께 증가한다는 가설 4는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자녀의 효심이 부모님 선물 금액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간접적인 조절효과는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자녀의 부모님 선물을 더 신경 쓸수록 더 큰 부담감을 느낀다는 가설 5-1에 대해서는 유의한 결과를 얻었고,

부담감이 클수록 자녀의 효심의 선물 지출 증대 효과가 강화된다는 가설 5-2는 거의 유의한 수준(marginally significant)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과거 못된 자녀 이론이 이기적인 심성을 가진 자녀의 자신을 위한 행동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족 전체의 이익 극대화로 이어진다는 의미였다면, 본 연구는 부모님의 기쁨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효심을 가진 자녀의 부모님을 위한 행동도 효심의 동기 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과의 사회적 관계 문제 등 이기적 동기가 포함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선물 증여에 있어서 부모의 이타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선물의 기능적 측면과 사회적인 의미 도출에 치우쳐져 있어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한계점을 보완했다는 이론적 의의를 가진다. 부모님 선물 증여 상황에서 개인적 부분과 사회적 부분을 포함한 상관관계를 밝혀 기존 연구를 발전시켰다. 나아가 선물 소비 활동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가족 내 선물 증여 활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마케팅과 광고에서 자녀들의 선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로 본 연구에 등장한 결정 요소들을 참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표본이 지나치게 여성에 편중되어 있고, 수입이 불안정한 연령층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남성 표본을 더

수집하고 직접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한다면 연구의 타당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추가적으로, 가설 3과 4의 검증 결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왔지만, 가설 3은 정반대의 결과가 유의했고 가설 4는 조절효과가 유의했다는 점에서 효용 함수 모델의 변수 관계를 수정하여 함수 모델의 현실 적합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희숙 (2005). “중국 도시 직장인들의 관계별 선물행위 특성,”
소비문화연구, 제 8 권 제 1 호.
- 박성연 (1995). “선물행위의 비교문화 연구-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의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국제경영연구,
6(단일호), 197-222.
- Arrow, K. (1972), “Gifts and Exchanges,”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343-62
- Becker, G. (1974), “A Theory of Social Interac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63-93.
- _____. (1976), “Altruism, Egoism, and Genetic Fitness:
Economics and Sociobiolog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817-26.
- Belk, W. (1979), “Gift-Giving Behavior,” *Research in Marketing*,
95-126.

- _____. (1982), "Effects of Gift-Giving Involvement on Gift Selection strategie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9(1), 408-412.
- Bergstrom, T. (1984), "Remarks on Public Goods Theory and the Economics of the Family," unpublished manuscript,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Michigan.
- Bernheim, D., Andrei, S., and Lawrence S. (1985),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45-76.
- Bruce, N. and Waldman, M. (1990), "The Rotten Kid Theorem Meets the Samaritan's Dilemma,"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55-165.
- Camerer, C. (1988), "Gifts as Economic Signals and Social Symbol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180-214.
- Caplow, T. (1982), "Christmas Gifts and Kin Network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June), 383-392.
- Hemenway, D. (1984), "Prices and choices: microeconomic vignettes," Cambridge, MA.

- Hirshleifer, J. (1977), "Shakespeare vs. Becker on altruism: The importance of having the last word,"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5(2), 500-502.
- Jackson, V. P., & Kwon, H. J. (2006), "Gift Giving: The Interaction between Gender, Gift Recipient, and Group Identity Importance by Product Catego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0(12), 1759-1767.
- Lee, Y. J., Parish, W. L., & Willis, R. J. (1994), "Sons, daughters, and intergenerational support in Taiwa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10-1041.
- Lindbeck, A., Nyberg, St., Weibull, J.W. (1999): Social Norms and Economic Incentives in the Welfare State, i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CXIV, Feb.: 1-35.
- Rupp, K. (1999), "Gifts in Japan: Ritual Constitution of Personal Identities, Social Relationships, and Cosmic Values Through The Presentation of Objects," The University of Chicago.

Shuwarts, B. (1967), "The Social Psychology of the Gif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3:1-11.

〈부록〉 수식 도출 과정

$$U_1 = 1 - e^{-(K_1-x_1)} + \beta_1 U_3$$

$$U_2 = 1 - e^{-(K_2-x_2)} + \beta_2 U_3$$

$$U_3 = 1 - e^{-\alpha(x_1+x_2)} + \beta_3(U_1 + U_2)$$

$$U_3 = 1 - e^{-\alpha(x_1+x_2)} + \beta_3(1 - e^{-(K_1-x_1)} + \beta_1 U_3 + 1 - e^{-(K_2-x_2)} + \beta_2 U_3)$$

$$= 1 - e^{-\alpha(x_1+x_2)} + \beta_3 - \beta_3 e^{-(K_1-x_1)} + \beta_1 \beta_3 U_3 + \beta_3 - \beta_3 e^{-(K_2-x_2)}$$

$$+ \beta_2 \beta_3 U_3$$

$$= 1 + 2\beta_3 + \beta_1 \beta_3 U_3 + \beta_2 \beta_3 U_3 - e^{-\alpha(x_1+x_2)} - \beta_3 e^{-(K_1-x_1)}$$

$$- \beta_3 e^{-(K_2-x_2)}$$

$$(1 - \beta_1 \beta_3 - \beta_2 \beta_3) U_3$$

$$= 1 + 2\beta_3 - e^{-\alpha(x_1+x_2)} - \beta_3 e^{-(K_1-x_1)} - \beta_3 e^{-(K_2-x_2)}$$

$(1 - \beta_1 \beta_3 - \beta_2 \beta_3) = Z$ 로 설정하면

$$U_3 = \frac{1}{Z} \{1 + 2\beta_3 - e^{-\alpha(x_1+x_2)} - \beta_3 e^{-(K_1-x_1)} - \beta_3 e^{-(K_2-x_2)}\}$$

다음과 같은 제한 조건 설정

- 1) $0 < \beta_1, \beta_2 < 1$ (자신의 기쁨보다 타인의 기쁨을 크게 느끼지 못함)
- 2) $\beta_1 + \beta_2 = 1$ (두 자녀 사이의 부모 생각 정도를 상대적 비율로 설정)

3) $0 \leq \beta_3 \leq 1$, $\alpha > 0$ (자신의 기쁨보다 타인의 기쁨을 크게 느끼지 못함)

(1) $\partial U_3 / \partial x_1$, $\partial U_3 / \partial x_2$

$$\frac{\partial U_3}{\partial x_1} = \frac{1}{Z} (\alpha \cdot e^{-\alpha(x_1+x_2)} - \beta_3 \cdot e^{-(K_1-x_1)})$$

$$\frac{\partial U_3}{\partial x_2} = \frac{1}{Z} (\alpha \cdot e^{-\alpha(x_1+x_2)} - \beta_3 \cdot e^{-(K_2-x_2)})$$

(2) $\partial U_1 / \partial x_1$, $\partial U_2 / \partial x_2$ 식(1)과 식(2)

$$\begin{aligned} \frac{\partial U_1}{\partial x_1} &= -e^{-(K_1-x_1)} + \beta_1 \cdot \left(\frac{\partial U_3}{\partial x_1} \right) \\ &= -e^{-(K_1-x_1)} + \beta_1 \cdot \left\{ \frac{1}{Z} (\alpha \cdot e^{-\alpha(x_1+x_2)} - \beta_3 \cdot e^{-(K_1-x_1)}) \right\} \\ &= -e^{-(K_1-x_1)} + \frac{\alpha\beta_1}{Z} \cdot e^{-\alpha(x_1+x_2)} - \frac{\beta_1\beta_3}{Z} \cdot e^{-(K_1-x_1)} \\ &= -e^{-(K_1-x_1)} \left\{ 1 + \frac{\beta_1\beta_3}{Z} \right\} + \frac{\alpha\beta_1}{Z} \cdot e^{-\alpha(x_1+x_2)} \\ &= -e^{-(K_1-x_1)} \left(\frac{Z + \beta_1\beta_3}{Z} \right) + \frac{\alpha\beta_1}{Z} \cdot e^{-\alpha(x_1+x_2)} \\ &= 0 \quad \dots \quad (\text{f. o. c}) \\ &= -e^{-(K_1-x_1)} (Z + \beta_1\beta_3) + \alpha\beta_1 \cdot e^{-\alpha(x_1+x_2)} = 0 \end{aligned}$$

($\partial U_2 / \partial x_2$ 도 같은 방식으로 풀면)

$$\frac{\partial U_2}{\partial x_2} = -e^{-(K_2-x_2)}(Z + \beta_2\beta_3) + \alpha\beta_2 \cdot e^{-\alpha(x_1+x_2)} = 0$$

(3) x_1^*, x_2^* 식 (3)과 (4)

$$\frac{\partial U_1}{\partial x_1} = -e^{-(K_1-x_1)}(Z + \beta_1\beta_3) + \alpha\beta_1 \cdot e^{-\alpha(x_1+x_2)} = 0$$

$$\alpha\beta_1 \cdot e^{-\alpha(x_1+x_2)} = e^{-(K_1-x_1)}(Z + \beta_1\beta_3)$$

$$e^{\ln(\alpha\beta_1)} \cdot e^{-\alpha(x_1+x_2)} = e^{-(K_1-x_1)} \cdot e^{\ln(Z+\beta_1\beta_3)}$$

$$\ln(\alpha\beta_1) - \alpha(x_1 + x_2) = -(K_1 - x_1) + \ln(Z + \beta_1\beta_3)$$

$$\ln(\alpha\beta_1) - \alpha x_1 - \alpha x_2 = -K_1 + x_1 + \ln(Z + \beta_1\beta_3)$$

$$(\alpha + 1)x_1 = \ln \frac{(\alpha\beta_1)}{Z + \beta_1\beta_3} + K_1 - \alpha x_2$$

$$\therefore x_1^* = \frac{1}{(\alpha + 1)} \left\{ \ln \frac{(\alpha\beta_1)}{Z + \beta_1\beta_3} + K_1 - \alpha x_2^* \right\}$$

(x_2^* 도 같은 방식으로 풀면)

$$x_2^* = \frac{1}{(\alpha + 1)} \left\{ \ln \frac{(\alpha\beta_2)}{Z + \beta_2\beta_3} + K_2 - \alpha x_1^* \right\}$$

$$\therefore x_1^* = \frac{1}{(\alpha + 1)} \cdot \ln \frac{(\alpha\beta_1)}{Z + \beta_1\beta_3} + \frac{1}{(\alpha + 1)} K_1 - \frac{\alpha}{(\alpha + 1)} x_2^*$$

$$\frac{\alpha}{(\alpha+1)}x_2^* = \frac{1}{(\alpha+1)} \cdot \ln \frac{(\alpha\beta_1)}{Z + \beta_1\beta_3} + \frac{1}{(\alpha+1)}K_1 - x_1^*$$

$$x_2^* = \frac{1}{\alpha} \cdot \ln \frac{(\alpha\beta_1)}{Z + \beta_1\beta_3} + \frac{1}{\alpha}K_1 - \frac{(\alpha+1)}{\alpha}x_1^*$$

(x_2^* 를 위 식에 대입하면)

$$\frac{1}{(\alpha+1)} \left\{ \ln \frac{(\alpha\beta_2)}{Z + \beta_2\beta_3} + K_2 - \alpha x_1^* \right\} = \frac{1}{\alpha} \cdot \ln \frac{(\alpha\beta_1)}{Z + \beta_1\beta_3} + \frac{1}{\alpha}K_1 - \frac{(\alpha+1)}{\alpha}x_1^*$$

$$\begin{aligned} -\frac{\alpha}{(\alpha+1)}x_1^* + \frac{1}{(\alpha+1)} \cdot \left\{ \ln \frac{(\alpha\beta_2)}{Z + \beta_2\beta_3} + K_2 \right\} \\ = \frac{1}{\alpha} \left\{ \ln \frac{(\alpha\beta_1)}{Z + \beta_1\beta_3} + K_1 \right\} - \frac{(\alpha+1)}{\alpha}x_1^* \end{aligned}$$

$$\left\{ \frac{(\alpha+1)}{\alpha} - \frac{\alpha}{(\alpha+1)} \right\} x_1^*$$

$$= \frac{1}{\alpha} \left\{ \ln \frac{(\alpha\beta_1)}{Z + \beta_1\beta_3} + K_1 \right\} - \frac{1}{(\alpha+1)} \cdot \left\{ \ln \frac{(\alpha\beta_2)}{Z + \beta_2\beta_3} + K_2 \right\}$$

$$\left\{ \frac{2\alpha+1}{\alpha(\alpha+1)} \right\} x_1^* = \frac{1}{\alpha} \left\{ \ln \frac{(\alpha\beta_1)}{Z + \beta_1\beta_3} + K_1 \right\} - \frac{1}{(\alpha+1)} \cdot \left\{ \ln \frac{(\alpha\beta_2)}{Z + \beta_2\beta_3} + K_2 \right\}$$

$$\therefore x_1^* = \frac{\alpha+1}{2\alpha+1} \left\{ \ln \frac{(\alpha\beta_1)}{Z + \beta_1\beta_3} + K_1 \right\} - \frac{\alpha}{2\alpha+1} \cdot \left\{ \ln \frac{(\alpha\beta_2)}{Z + \beta_2\beta_3} + K_2 \right\}$$

(x_2^* 도 같은 방식으로 풀면)

$$x_2^* = \frac{\alpha+1}{2\alpha+1} \left\{ \ln \frac{(\alpha\beta_2)}{Z + \beta_2\beta_3} + K_2 \right\} - \frac{\alpha}{2\alpha+1} \cdot \left\{ \ln \frac{(\alpha\beta_1)}{Z + \beta_1\beta_3} + K_1 \right\}$$

(4) $\partial x_1^*/\partial \beta_1, \partial x_2^*/\partial \beta_2$

$$\begin{aligned}
\frac{\partial x_1^*}{\partial \beta_1} &= \frac{\alpha + 1}{2\alpha + 1} \left\{ \frac{(1 - \beta_2\beta_3)}{\alpha\beta_1} \cdot \frac{\alpha}{1 - \beta_2\beta_3} \right\} \\
&\quad - \frac{\alpha}{2\alpha + 1} \left\{ \frac{1 - \beta_1\beta_3}{\alpha\beta_2} \cdot \frac{\beta_3(\alpha\beta_2)}{(1 - \beta_1\beta_3)^2} \right\} \\
&= \frac{\alpha + 1}{2\alpha + 1} \left(\frac{1}{\beta_1} \right) - \frac{\alpha}{2\alpha + 1} \cdot \frac{\beta_3}{(1 - \beta_1\beta_3)} \\
&= \frac{1}{2\alpha + 1} \left(\frac{1}{\beta_1} \right) + \frac{\alpha}{2\alpha + 1} \left(\frac{1}{\beta_1} - \frac{\beta_3}{(1 - \beta_1\beta_3)} \right) \\
&= \frac{1}{2\alpha + 1} \left(\frac{1}{\beta_1} \right) + \frac{\alpha}{2\alpha + 1} \cdot \frac{1 - 2\beta_1\beta_3}{\beta_1(1 - \beta_1\beta_3)} > 0 \quad (\because \beta_1 + \beta_2 \\
&\quad = 1, 0 \leq \beta_3 \leq 1)
\end{aligned}$$

($\partial x_2^*/\partial \beta_2$ 도 같은 방식으로 풀면)

$$\frac{\partial x_2^*}{\partial \beta_2} = \frac{1}{2\alpha + 1} \left(\frac{1}{\beta_2} \right) + \frac{\alpha}{2\alpha + 1} \cdot \frac{1 - 2\beta_2\beta_3}{\beta_2(1 - \beta_2\beta_3)} > 0$$

(5) $\partial x_1^*/\partial \alpha$, $\partial x_2^*/\partial \alpha$

$$\begin{aligned}
\frac{\partial x_1^*}{\partial \alpha} &= \frac{2\alpha + 1 - 2(\alpha + 1)}{(2\alpha + 1)^2} \cdot \left(\ln \frac{\alpha\beta_1}{1 - \beta_2\beta_3} + K_1 \right) - \frac{\alpha + 1}{2\alpha + 1} \\
&\quad \cdot \left(\frac{1 - \beta_2\beta_3}{\alpha\beta_1} \cdot \frac{\beta_1}{1 - \beta_2\beta_3} \right) - \frac{2\alpha + 1 - 2\alpha}{(2\alpha + 1)^2} \\
&\quad \cdot \left(\ln \frac{\alpha\beta_2}{1 - \beta_1\beta_3} + K_2 \right) + \frac{\alpha}{2\alpha + 1} \cdot \left(\frac{1 - \beta_1\beta_3}{\alpha\beta_2} \cdot \frac{\beta_2}{1 - \beta_1\beta_3} \right) \\
&= -\frac{1}{(2\alpha + 1)^2} \cdot \left(\ln \frac{\alpha\beta_1}{1 - \beta_2\beta_3} + K_1 \right) - \frac{\alpha + 1}{2\alpha + 1} \left(\frac{1}{\alpha} \right) - \frac{1}{(2\alpha + 1)^2} \\
&\quad \cdot \left(\ln \frac{\alpha\beta_2}{1 - \beta_1\beta_3} + K_2 \right) + \frac{\alpha}{2\alpha + 1} \left(\frac{1}{\alpha} \right) \\
&= -\frac{1}{(2\alpha + 1)^2} \cdot \left(\ln \frac{\alpha\beta_1}{1 - \beta_2\beta_3} + K_1 \right) - \frac{1}{2\alpha + 1} \left(\frac{1}{\alpha} \right) - \frac{1}{(2\alpha + 1)^2} \\
&\quad \cdot \left(\ln \frac{\alpha\beta_2}{1 - \beta_1\beta_3} + K_2 \right) < 0
\end{aligned}$$

(단, α 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크다고 가정)

$$\begin{aligned}
\frac{\partial x_2^*}{\partial \alpha} &= -\frac{1}{(2\alpha + 1)^2} \cdot \left(\ln \frac{\alpha\beta_2}{1 - \beta_1\beta_3} + K_2 \right) - \frac{1}{2\alpha + 1} \left(\frac{1}{\alpha} \right) - \frac{1}{(2\alpha + 1)^2} \\
&\quad \cdot \left(\ln \frac{\alpha\beta_1}{1 - \beta_2\beta_3} + K_1 \right) < 0
\end{aligned}$$

(6) $\partial x_1^*/\partial \beta_3, \partial x_2^*/\partial \beta_3$

$$\begin{aligned}
\frac{\partial x_1^*}{\partial \beta_3} &= \frac{\alpha + 1}{2\alpha + 1} \left(\frac{1 - \beta_2 \beta_3}{\alpha \beta_1} \cdot \frac{\alpha \beta_1 \beta_2}{(1 - \beta_2 \beta_3)^2} \right) - \frac{\alpha}{2\alpha + 1} \\
&\quad \cdot \left(\frac{1 - \beta_1 \beta_3}{\alpha \beta_2} \cdot \frac{\alpha \beta_1 \beta_2}{(1 - \beta_1 \beta_3)^2} \right) \\
&= \frac{\alpha + 1}{2\alpha + 1} \left(\frac{\beta_2}{1 - \beta_2 \beta_3} \right) - \frac{\alpha}{2\alpha + 1} \left(\frac{\beta_1}{1 - \beta_1 \beta_3} \right) \\
&= \frac{1}{2\alpha + 1} \left(\frac{\beta_2}{1 - \beta_2 \beta_3} \right) + \frac{\alpha}{2\alpha + 1} \left(\frac{\beta_2 - \beta_1}{1 - \beta_1 \beta_3} \right)
\end{aligned}$$

∴ (unstable)

($\partial x_2^*/\partial \beta_3$ 도 같은 방식으로 풀면)

$$\frac{\partial x_2^*}{\partial \beta_3} = \frac{1}{2\alpha + 1} \left(\frac{\beta_1}{1 - \beta_1 \beta_3} \right) + \frac{\alpha}{2\alpha + 1} \left(\frac{\beta_1 - \beta_2}{1 - \beta_2 \beta_3} \right)$$

(만약 $\beta_1 = \beta_2$ 일 때, $\frac{\partial x_2^*}{\partial \beta_3} > 0, \frac{\partial x_2^*}{\partial \beta_3} > 0$)

<부록2> 본 실험 설문 조사 양식

Q0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마케팅 석사과정생 입니다. 먼저 본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본 설문조사는 선물 전달의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모든 응답은 익명으로 저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응답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상 응답 소요 시간은 약 3분 입니다.

Q1. 형제나 자매가 한 명 이상 있으십니까?

- 있다 (1)
- 없다 (2)

Q2. 응답자 본인이 복권에서 100만 원이 당첨되어 당첨금을 수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당첨금을 사용해야 한다면 어느 곳에 얼마나 사용하시겠습니까? (총액 100만 원을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위 : 만원)

_____ 본인이 평소 사고 싶었던 물건을 구매하거나 스스로를 위해 사용 (1)

_____ 친구들과 모여 노는 데 사용 (2)

_____ 부모님을 위해 사용 (3)

_____ 어려운 이웃 혹은 사회를 위해 기부하는 데 사용 (4)

Q3. 만약 본인이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가 100만원에 당첨되었다면 어떻게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총액 100만 원을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위 : 만원)

_____ 본인이 평소 사고 싶었던 물건을 구매하거나 스스로를 위해 사

용 (1)

_____ 친구들과 모여 노는 데 사용 (2)

_____ 부모님을 위해 사용 (3)

_____ 어려운 이웃 혹은 사회를 위해 기부하는 데 사용 (4)

Q4. 만약 본인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100만원에 당첨되었다면 어떻게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총액 100만 원을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위 : 만원)

_____ 본인이 평소 사고 싶었던 물건을 구매하거나 스스로를 위해 사용 (1)

_____ 친구들과 모여 노는 데 사용 (2)

_____ 자녀들을 위해 사용 (3)

_____ 어려운 이웃 혹은 사회를 위해 기부하는 데 사용 (4)

Q5. 평소에 혹은 기념일에 부모님께 선물을 드릴때 평균적으로 얼마를 지출하시는 편입니까? (단위 : 만원)

_____ 만원 (1)

Q6. 위에 응답하신 선물 지출 금액은 본인의 월수입(혹은 월 용돈)의 몇 % 정도 되는 금액입니까?

_____ % (1)

Q7. 본인이 느끼기에 위에 응답하신 선물 금액의 부담되는 정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시오.

-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1 점 (1)
- 2 점 (2)
- 3 점 (3)
- 4 점 (4)
- 매우 부담된다 5 점 (5)

Q8. 만약 부모님께서 상대적으로 비싼 선물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았다면, 다음 선물 금액을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 더 저렴한 선물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는다. (1)
-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2)
- 더 비싼 선물을 구매한다. (3)

Q9. 만약 부모님께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선물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았다면, 다음 선물 금액을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 더 저렴한 선물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는다. (1)
-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2)
- 더 비싼 선물을 구매한다. (3)

Q10. 다른 형제자매의 수입이 본인 보다 4배 많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형제자매와 부모님 선물을 어느 정도 부담하여 구매하시겠습니까? (형제 자매가 여러 명 있는 경우, 그 중 1명과 부담한다고 가정) (총 부담 합계 100%)

_____ 본인 부담 % (1)

_____ 다른 형제자매 부담 % (2)

Q11. 다른 형제 혹은 자매와 부모님 선물을 따로 전달한다고 생각할 때, 다른

형제 혹은 자매의 선물 금액이 얼마나 신경쓰이십니까?

- 전혀 신경쓰이지 않는다. 1 점 (1)
- 2 점 (2)
- 3 점 (3)
- 4 점 (4)
- 매우 신경쓰인다. 5 점 (5)

Q12. 부모님 선물을 고를 때 본인이 느끼는 부담감의 정도를 선택해주시오.

-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1 점 (1)
- 2 점 (2)
- 3 점 (3)
- 4 점 (4)
- 매우 부담된다 5 점 (5)

Q13. 부모님 선물을 고를 때 본인이 느끼는 즐거움의 정도를 선택해주시오.

- 전혀 즐겁지 않다 1 점 (1)
- 2 점 (2)
- 3 점 (3)
- 4 점 (4)
- 매우 즐겁다 5 점 (5)

Q14. 본인의 성별을 선택해 주십시오.

- 남 (1)
- 여 (2)

Q15. 본인의 나이에 해당하는 그룹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 10 대 이하 (1)
- 20 대 (2)
- 30 대 (3)
- 40 대 (4)
- 50 대 (5)
- 60 대 이상 (6)

A Study of Gift-giving Decision

Making for Parents

Kim, DongJu

College of Busines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Rotten Kid Theory (Becker, 1974)' introduce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parents and their kids in the context of inheritance. Usually, because the kids want to maximize their utility, they spend all allowance whenever their parents give it to them. They consider the present utility most, so they tend to use their all allowance. However, Becker (1974) said that they choose the way to maximize their family's utility for their private benefit if they know their parents will give them inheritance. He demonstrated the reason of 'the rotten kid's' behavior by using the interaction utility function between father and his son.

This paper applies and develops Becker's interaction utility function to study how the son and daughter make a decision about their gifts for

their parents. The function used in this paper is including parents' altruism, son and daughter's filial affection, and parents' reaction toward gifts to analyze the gift giving process in the family. The empirical study data was collected from people who has brother or sister (Age range: 20~35), and they answered questions that (1) the portion of spending money for their parents if they won the prize (1 million won) in the lottery, (2) the portion of spending money for them if their parents won the prize (1 million won) in the lottery, (3) the monetary value of their latest gift for their parents, (4) the portion of sharing gift expenses with their brother or sister if they have different income level, (5) the effect of their parents' reaction to the gift giving decision, (6) the degree of concerning their brother or sister's gift for their parents.

The results say that person whose income was greater than other brother or sister expend much money for the gifts. Also, a person who has more strong filial affection and feels his or her parents' happiness more valuable spends greater money for the gifts. The moderation effect of parents' altruism to the process that kids' filial affection increases monetary value of the gift is verified. Lastly, the results say that the more people concern other brother or sister's gift value, the stronger they feel burden. This feeling affect kids to spend more money for their parents' gift.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extending scope of gift-giving decision making study, and makes up for the limitation of prior research that they were focused to parents' perspective and parents' altruism as a factor of gift-giving.

Keywords: Rotten Kid Theorem, Gift-giving, Decision making process for the gift, Interactive Utility Function.

Student Number: 2015-20582